

9/ /17/

설교 제목: 신랑의 아름다움 (아가서 5 장)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아가서 5:1-16

- (아 5:1)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절관주** 아 4:16, 요 3:29
- (아 5:2)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절관주** 계 3:20
- (아 5: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절관주** 눅 11:7
- (아 5:4)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 (아 5:5)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빛장에 떨어지는구나
- (아 5:6)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 (아 5:7)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겹옷을 벗겨 가졌도다
- (아 5:8)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 (아 5:9)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 (아 5:10)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절관주** 시 45:2
- (아 5:11)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 (아 5:12)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절관주** 아 1:5

- (아 5:13)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똑똑 떨어지는구나
- (아 5:14)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 (아 5:15)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 (아 5:16)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 (아 5:1)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4 장 마지막 절에서 신부가 신랑을 자신의 동산으로 초청하였습니다.

- (아 4: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신랑이 그의 동산에 들어와 그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그의 꿀송이와 꿀을 먹었고
 그의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고 답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신부의 동산으로 초청했는데 신랑은 그 동산을 가리켜 '내 동산' 자신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동산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신랑되신 주님께서서는 성령으로 교회인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분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동산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 하시는 일이 당신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시는 일입니다.

몰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향은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발하게 되는 향입니다.

꿀송이와 꿀, 포도주와 젖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 선한 말들입니다.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배불리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부터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계 3: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 5:2)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부는 육신적으로 잘지라도 사랑하는 신랑의 목소리는 들린다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잔다는 것은 성도가 다시 주님과 멀어져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가리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은 친근함의 표현이고 '나의 비둘기'는 충성과 순결함의 표현이며 '나의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비록 흠이 많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신랑은 머리에 이슬이 흠뻑 젖기까지 밖에서 기다리며 신부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밖에서 서서 우리의 회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5: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 5:4)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신랑이 문 틈으로 손을 들이 밀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 시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성령으로 표현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나 또 다시 실족했을 경우에도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시 37:24)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 5:5)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빛장에 떨어지는구나

신부가 문을 열 때 신부의 손과 손가락에서 몰약과 몰약의 즙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신부의 손과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몰약과 몰약의 즙은 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는 참된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령에 큰 고통이지만 하나님께는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행위입니다.

회개는 주를 영접하기 위한 성도들의 합당한 마음과 행위입니다.

회개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아 5:6)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부가 뒤늦게 문을 열었을 때는 신랑은 이미 떠나가서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아 헤매도 만나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이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의 아집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 5:7)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겹옷을 벗겨 가졌도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을 찾으나 만나지 못할 때 성도들은 애타하며 목회자들을 찾아가 영적인 지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마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더욱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교회 역사에 흔히 있어 왔습니다.

많은 지상 교회들이 연약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기 보다는 세속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교인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중상 모략을 하기도 하며 핍박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멸시 당하고 비방과 중상 모략으로 핍박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의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승화시켜 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 5:8)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신부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신랑을 만나거든 자기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모한 나머지 발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여 찾아 헤매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받지 못하여 애타게 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를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를 찾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렘 29: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렘 29: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 5:9)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인들은 솔람미 여인을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는 경건하고 성결하며 선하고 진실하여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솔람미 여인에게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기에 네가 그토록 그를 사랑하느냐고 두 번씩이나 묻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뛰어남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랑을 미치도록 사모하여 찾아 헤매는 솔람미 여인의 마음을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계 5: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신부는 10-16 절에 거쳐 신랑의 아름다움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아 5:10)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시다는 것은 성결함을, 붉으시다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함을 나타냅니다.

(아 5:11)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순금 같이 귀합니다.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다는 것은 쇠하지 않고 변함없이 원기 왕성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 5:12)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는데 눈이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는 말은 시냇가에 씻은 것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은 곧 마음을 가리킵니다.

눈이 성결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마음이 성결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5:13)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뺨이 향기로운 꽃밭과 향기로운 풀언덕 같다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한
향기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입술이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은혜로우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5:14)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손이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다는 것은 그의 행하시는 일이 부요하고 순수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몸이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다는 말은 그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하여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아 5:15)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 5:16)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다리가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가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형상이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크고 위엄있다는
의미입니다.

입이 심히 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심히 은혜스럽다는 뜻입니다.

신부의 눈에 신랑의 몸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는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여인들이 솔라미 여인에게 “도대체 너의 신랑이 누구이길래 네가 이토록 미쳐 사랑하고
애타게 찾아 헤매느냐”고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를 미치도록 사랑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네가 이토록 미쳐 사랑하느냐”는 소리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